백두산 2

음악과 기사

주체91(2002)년 5월 10일

강산에 울려퍼지는 통일애국의 노래

-노래 ≪우리는 하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조선이 통일되면 우리 조국은 7천만의 인구를 가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세계무대에 당당히 등장할 것이며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존엄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자랑 떨치게 될 것이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통일위업의 새 시대가 펼쳐진 삼천리 조국땅에 통일의 노래가 장엄하게 울려퍼집니다.

온 겨레의 불타는 통일열망을 담아 조국통일의 새아침 밝아올 그날의 환희를 안고 강산에 메아리치는 이 노래.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백두대산줄기가 뻗어내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불러왔습니다.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우리 겨레는 이 땅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핏줄을 굿굿이 이어오며 화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반세기도 훨씬 넘도록 민족분열의 불행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팔을 베고 자던 그 손녀가 할머니와 갈라지고 한 집안에 살던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지고, 한 뜨락에서 뛰놀던 형님동생이 갈라져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속에 장장 50여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 수 없는 우리 민족, 세계 유일의 단일민족인 우리 겨레가 세계유일의 분렬국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가 갈라진 그 시기부터 하나의 통일된 조국을 안아오기 위해 필생의 노고를 바치시였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절절한 숙원을 안으시고 조국통일운동의 진두에 서시여 통일대진군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십니다.

주체59(1970)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관계부문 일군들을 부르시여 우리 민족의 통일전망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하나의 조선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은 하나다≫, 이것이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조국통일을 최대의 숙망으로 간직하고 통일의 그날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겨레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말씀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런 철석의 통일의지를 안으시고 마침내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 북남공동선언을 발표하셨으며 20세기 영마루위에 새 세기의 통일이정표를 높이 세우시였습니다. 실로 이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서 새로운 전환이였고 대경사였습니다.

참으로 민족분렬로해서 우리 겨레가 입은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우리 나라는 원래 자원이 풍부하고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슬기와 재능으로 세상에 이름 떨친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지구상에서 금속활자를 처음으로 발명하고 리용한 것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입니다. 나라가 분렬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 조국은 세상에서 으뜸가는 강성대국이 됐을 것입니다.

조국이 하나가 되는 길, 곧 그것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길입니다. 하기에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이 땅에 통일위업의 새 시대가 펼쳐졌을 때에 통일의 열풍이 강산에 넘쳤던 것입니다.

한 해외동포작가는 그때의 소감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날과 달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에 단 하나 아픔이 있었나니
하나가 하나로 되지 못하고 둘이라는 괴로움
통일만세소리 울려야 할 삼천리에
분렬만이 깊어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건만 이 어인 일입니까
장장 50여년 수령님 통일유훈 받드시어
조국통일의 서광을 단 사흘만에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
이제는 평양이 부르면 서울이 화답하고
대동강이 춤추면 한강이 너울너울
백두산 천지가 설레면 한라산 백록담이 출렁입니다

민족의 태양 통일의 구성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통일령도의 진두에 서 계시기에 태양조선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됩니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하루빨리 분렬의 빗장을 제끼고 통일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전체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 마음과 마음의 합심입니다. 이제 7천만이 딛고선다면 분리선장벽은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문지방에 앉으면 복이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광복후 미군이 조선의 38도선을 가로타고 앉음으로써 우리 민족의 광복의 기쁨은 분렬의 아픔으로 화해버렸습니다.

7천만이 주인이 돼서 자주의 주먹 높이 치켜든다면 분렬을 강요한 외세도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화해하고 협력하며 단합하여 통일의 문을 어서 빨리 열어나갑시다.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쌓이고 쌓였던 분렬의 한을 백두산 천지의 맑은 물과 한라산 백록담 푸른물로 상쾌하게 씻어내고 통일대문 높이 선 삼천리강토에 통일만세소리가 울려갈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레여! 찬란한 태양의 빛발아래 통일의 봄을 앞당깁시다!≫

≪태양조선 우리는 하나입니다!≫

음악과 기사

강산에 울려퍼지는 통일애국의 노래
우리는 가리 승리의 한길
수령님은 참으로 검박하신 분이시었습니다

우리는 가리 승리의 한길

-노래 ≪승리의 길≫-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완성의 한길에 영원히 변치않을 우리 신념의 맹세인양 내 조국의 맑은 하늘가에 힘있게 울려가는 노래 ≪승리의 길≫.

오늘도 이 노래 속에 우렷이 솟아오는 우리 혁명의 길.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혁명, 기어이 장군님 따라서 승리로 떨치리라는 이 노래를 들을수록 장구한 투쟁의 길에 붉은기를 적신 선열들의 더운 피 우리 마음 속에 젖어오고 대를 이어가는 혁명의 천만리길위에 새겨온 영광의 자욱자욱이 숭엄히 어려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 **≪우리 혁명의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합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전체 인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을 굳게 믿고 따르며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이 노래. 자기를 믿듯 승리를 굳게 믿고 산다는 인민들.

우리 선열들은 불변의 이 진리를 혁명의 준엄한 연대마다에 위대한 노력과 실천으로 수놓아왔습니다.

아직 혁명승리를 기약할 수 없었고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고 눈보라 속에서 사선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순간의 동요나 변심을 모르고 끝까지 조국광복의 날을 이 땅에 안아온 우리의 항일혁명투사들.

낙동강의 불모래를 넘고 복구건설의 폐허를 가시어 모든 고난과 난관을 이기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강조국의 터전을 굳건히 다져놓은 혁명의 전세대들.

어찌 그들뿐이겠습니까. 한번 택한 혁명의 길을 깨끗한 양심과 지조로 지킬 줄 알았기에 우리의 비전향장기수들은 그 길을 승리로 빛내이고 위대한 수령의 품,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길 수 있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혁명선열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밝아오는 조국의 내일을 그려 백두의 설한풍을 헤치고 전쟁의 불바다를 넘으며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것처럼 우리 장군님만 계시면 바라는 모든 행복과 영광이 온다는 불굴의 신념 안고 우리 인민은 오늘도 강성대국을 향하여 신심 높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만을 굳게 믿고 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자체의 힘과 지혜로 ≪광명성1호≫도 창공높이 쏘아올렸고 후손들의 번영을 위한 현대적인 공장들도 건설했으며 조상대대로 물려오던 뙈기밭들도 노동당시대의 새 토지로,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펼쳐놓을 수 있었습니다.

정녕 어버이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면불휴의 애국헌신으로 쉼없이 이어가시는 노고의 천만리길을 생각할수록 새해의 대진군길에 다지는 우리의 신념과 맹세는 노래와 더불어 더욱 굳세어 집니다.

진정 자기의 것을 버리고 남의 비위를 맞추며 굴욕스러운 평온을 찾느니 차라리 모진 고생을 겪어도 붉은기와 더불어 존엄을 지키고 미래를 개척하는 승리의 강자가 되자는 우리 인민의 그 절개. 절해고도 속에서도 외로움을 모르고 역경 속에서 더욱 굳세어지고 예리해지는 그 신념.

영도자를 따르는 길에 변색을 모르는 우리 인민의 그 충성이 명곡을 낳은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 장군님 따라서 승리로 떨치리라는 군민의 신념의 메아리 그처럼 강렬했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신년경축공연무대에서 울려퍼지는 노래 ≪승리의 길≫을 다시금 들으시며 자자구구 심중에 뜨겁게 새기셨습니다.

지금의 난관이 아무리 커도 위대한 장군님을 굳게 믿고 따를 때 우리가 가는 길은 영원한 승리의 길이라는 진리를 안겨주는 이 노래와 함께 나남의 봉화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주체혁명위업계승자들의 투쟁 속에 **김정일**강성대국은 반드시 이 땅에 이 하늘아래 일떠서고야 말 것입니다.

인민의 운명과 인류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불변의 신념과 의지, 위대한 사상으로 사회주의승리의 역사, 20세기를 빛내이신 우리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따라 나아갈 때 우리 희망으로 맞이한 21세기도 조선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역사로 찬연히 엮어질 것입니다.

수령님은 참으로 검박하신 분이시었습니다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김영숙-

4월을 맞고보니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우신 모습이 더더욱 그리워지고 수령님에 대한 생각으로 눈굽이 뜨거워집니다.

한없이 자애롭고 소박하신 모습으로 언제나 제 마음속에도 계시는 우리 수령님에 대한 추억에 잠기노라면 그이께서 회고록에서 쓰신 이런 대목이 떠오르곤 합니다.

≪빨찌산시절이 나의 객체생활에서 제일 송구스러운 때가 어떤 때였는가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원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표가 나게 섬길 때였다고 대답할 것이다.≫

회고록의 이 대목을 되새길수록 제게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남들에게 차례지지 않는 특대나 특혜가 차례질 때 자신을 사로잡은 것은 그 어떤 우월감이나 자족감이 아니라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은 불안하고 죄스러운 감정이었다고 하시던 말씀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평생 그 어떤 특혜나 특전도 마다하시고 인민들과 한치의 차이도 없이 겸허하고 소박하게 생활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버이수령님 몸가까이 모시고 일하던 나날에 가슴 뜨겁게 절감하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끝없이 인자하시고 겸허하신 분이시었습니다.≫

한없이 겸허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하신 풍모를 생각하노라면 제게는 언제든지 바가지와 관련한 일화가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어느 한 군병원에서 일하다가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하는 영광을 지니고 있던 저에게 하루는 기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고향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다는 것이였습니다.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에게 고향의 어머니가 찾아온 사실을 아시고 지체없이 만나도록 해주셨을뿐만 아니라 제가 어머니를 만날 때 들고 갈 것까지 준비해주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의 어머니와 반갑게 만나게 되였고 밤새껏 어머니와 회포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어머니와 헤어지면서 저는 난처한 일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어머니가 박을 켜서 만든 바가지 두개를 꺼내주면서 막 가지고 가라고 하였기때문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할 것없이 아름다운 갖가지 색깔의 비닐바가지를 갖춰놓고 쓰고 있지만 그때까지만해도 박으로 만든 바가지를 쓰는 것이 보통이였습니다. 그래서 딸의 집을 찾아오는 어머니들은 큰 박으로 만든 바가지를 들고 오곤 하였습니다.

어머니 성의가 깃든 것이여서 저는 할 수 없어 바가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어머니를 만났다는 것과 어머니가 주는 바가지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허참, 귀한 것을 가지고 왔구만.≫

하시는 것이였습니다.

그때 저는 가슴이 뭉클 젖어드는 것이였습니다.

글쎄 나라일을 돌보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평범한 가정에서 쓰는 바가지쓸모까지 헤아려주시니 말입니다. 물론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한없는 겸허성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모르는 것이 아니였지만 그 순간 저는 참으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였습니다. 더욱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인민들이 쓰는 것과 꼭같은 것을 쓰시면서 그 평범한 바가지를 가정생활에 정히 이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위인의 겸허한 풍모는 지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존중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것이라고 저

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훤히 알게 된 것은 어느 해 초겨울 한 일군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였습니다.

어느날 한 일군은 날씨도 추워오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 현지지도를 다니실 때마다 늘 입으시는 상복이 색깔이 낡고해서 어버이수령님께 옷 한 벌을 지었으면 하는 뜻을 말씀올렸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옷을 짓기보다 이 옷을 손질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군은 난처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했습니다.

그 일군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현지지도를 나가시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하겠는데 어떻게 수리한 옷을 입으시겠는가고 다시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을 나무라하시며 이렇게 타이르셨다고 합니다.

≪동무들은 나를 무슨 왕으로 만들작정인가. 늘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것을 마련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인민들 속에 들어가는데 사치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내가 색다른 옷차림을 하고 다니면 노동자, 농민들은 도리어 나를 어렵게 대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 해야한다. 그러자면 일상생활부터 검박하게 꾸려야 한다. 모든 것을 아껴쓰고 절약하는 것을 실생활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살림살이와 인민들의 생활에도 보탬을 줄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너무나 간곡히 하시는 말씀이어서 그 일군은 더는 다른 말씀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옷을 수리하러 가져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지지도를 나가실 때 늘 입으시던 그 수수한 겨울옷을 다시 손질하여 입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고매한 풍모에 머리가 깊이 숙여졌습니다.

눈보라 휘몰아치는 백두밀림에서 풍찬노숙하시면서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고르고 골라 해드리는 것은 이 나라 인민의 응당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과 꼭같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색낡은 옷을 수리해서 입으셔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제가 그 성함만 들어도 벌벌 떨었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도 무릎을 꿇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높이 모시는 것은 이 나라 인민의 응당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평범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이 나라 인민들 끝없이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면서 그들과 다름없는 검박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시는 것이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애용하시던 수수한 목란텔레비전 수상기와 보통비닐실내화에대한 인상을 두고 어버이수령님의 그같이 겸허하시고 소박하신 풍모를 되새겨 봅니다.

역사에는 수많은 이름있는 정치가들이 있지만 우리 수령님과 같이 당과 국가의 수위에 계시면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생활에서는 끝없이 소박하고 겸허한 그런 정치가가 언제 있었습니까.

진정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평생 그 어떤 특혜나 특전도 마다하시고 인민들과 한치의 차이도 없이 겸허하고 소박하게 생활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모습에서 한없이 겸허하고 인자하신 수령님의 모습을 그대로 뵙고 있습니다.

늘 수수한 잠바옷을 입으시고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으시며 조국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마음 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모습은 정녕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언제나 인민들 속에 들어가시면서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던 어버이수령님 모습 그대로이십니다.

조국과 인민위해 쪽잠도 줴기밥도 달게 여기시며 선군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어 우리 운명은 굳건히 지켜지고 우리의 승리도 확정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